

화장품

Feb 19 2026

K-뷰티, 영국 화장품 시장도 돌격!

Overweight

유지

영국 부츠가 직접 발굴하고 키운다. K-뷰티와 전략적 파트너

영국은 국내외 트렌드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시장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소비자 중 65%가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됨. 최근 영국 화장품 시장 내 K-뷰티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PDRN, 셀텔라, 엑소좀 등 K-뷰티 대표 성분들은 이미 대중화되며 소비자 일상에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됨. K-향수, K-헤어케어, K-파마시 등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영국 소비자들의 관심도 확대되는 추세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츠 내 K-뷰티 매출은 1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K-헤어케어 론칭 이후 신규 소비자 유입이 발생하며 K-뷰티 브랜드의 고객 유인력이 주목받고 있음. 고성장에 힘입어 부츠는 자체 K-뷰티 브랜드 소싱을 적극 확대하는 중임. 2025년 7월에는 시장 방문과 AI 트렌드 분석을 통해 '메디힐' 브랜드를 직접 발굴했으며, 패키징/마케팅/유통을 적극 지원하며 신속한 온보딩을 추진할 결과, 2025년 10월 론칭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영국 100개 점포에 입점함. 현재 영국 부츠 스킨케어 카테고리 최상위에는 'Korean skincare'가 독립 카테고리 자리잡고 있으며, 전체 스킨케어 SKU 약 4,059개 중 400개 내외의 K-뷰티 SKU가 판매중임. 주요 브랜드로는 메디큐브(12개), 아누아(30개), 라네즈(30개), 이니스프리(24개), 바이오던스(22개), 조선미녀(19개), COSRX, 메디힐 등 총 36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음.

영국 틱톡샵도 점령한 K-뷰티: 마케팅 없이도 1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영국 틱톡샵 뷰티 카테고리 매출액은 YoY 60% 성장하며, 아마존, 부츠, 루판타스틱에 이어 영국 뷰티 소매업체 4위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틱톡은 이러한 고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K-뷰티를 언급했으며, 영국 틱톡 내 K-뷰티 관련 검색량은 YoY 125% 증가해 3위를 기록함. 특히 메디큐브의 제로모공팩트는 YoY 400% 이상 성장하며 대표적인 히트 제품으로 자리잡았으며, 메디큐브는 25년 11월 영국 아마존/틱톡샵 론칭 이후 영국에서 별도의 로컬 마케팅 없이도 두 플랫폼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 중임. 닥터멜락신 역시 고성장을 기록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영국 틱톡샵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매우 고무적이며, 오는 4월부터 영국 부츠에 입점될 예정임.

유럽 확장의 서막

2025년 영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49.5억달러(YoY 41%)를 기록했으며, 지난 3년간, 5년간 CAGR은 각각 +49%/+33%를 기록. 최근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으며, 특히 26년 1월은 22.5백만달러(YoY 117%), 2월 10일치 데이터는 5.9백만달러 (YoY 85%, MoM 80%)를 기록해 성장 궤도가 가팔라지고 있음. K-뷰티 브랜드들이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임. 미국에서 이제 영국을 필두로 이외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지역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 참고로, 유럽의 화장품 합산 규모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됨.



[음식료/화장품] 권우정

3771-9082,
20240006@iprovest.com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5.12.31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6.4%	2.9%	0.7%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가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